

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오 승 통
편집인: 박 상 호

2. 복음이 춤을
추는 도시

4. 노인대학
가을 나들이

6. 성시신문 7주년
특별 좌담회

9. 하나님의
걸작품 "가정"

나 침 반
교회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4년 11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 72 호

기도의 계절 ·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자

"다시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소서", "춘천을 주유소서, 아니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외치는 기도소리. 많은 무리는 아니었지만 저녁 집회 이후에도 귀가하지 않고 자정을 넘기도록 애절하게 외치던 중보기도자들의 기도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들린다. 이는 지난 10월 첫 주간에 열렸던 2004 성시화 춘천선교대회의 한 장면. 이번 대회는 풍성한 여러 열매와 함께 중보기도 사역에 새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함께 중보기도자의 출현이 쇠퇴하는 도시와 그 도시의 교회에 불을 지르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되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1:8).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시골 지

역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교적 출발지로 도시를 택하셨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도시에서 시작되었듯이 지구상 가장 먼 지역에 있는 최후의 도시가 복음화 되어졌을 때 그것이 끝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문명의 기본 단위가 되는 도시들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도시들에 대해서 매우 강한 감정을 느끼셨으며 도시들이 소멸되었을 때 슬퍼하셨다.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도시 거주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셨다. 니느웨와 같은 도시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

우리는 이 도시 춘천의 회복을 꿈꾼다. 도시의 회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그중 간과하기 쉬운 것은 "이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이다. 피터 와그너 박사는 "중보기도란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오늘날의 교회성장학적으로 볼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었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교회가 기도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2장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 후 마가다 락방을 떠나지 않았으며 모여 뜨겁게 기도하던 열흘 후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이것이 지상 최초 교회의 시작이었다.

지금 춘천의 자연적 계절은 봄과 여름, 가을을 지나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의 영적인 계절은 어떠한가? 춘천은 열매 맺는 기도의 계절, 성령의 계절로 가야한다. 주여 다시 이 도시에 기도의 계절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글/편집부)



이달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

· 수도이전 특별법 위반 결정

행정수도이전의 현재 결정에 따른 대안 마련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향후 정국을 좌우할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어지러운 정국을 빨리 매듭짓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소서.

· 부산과 대구·경북 성시화대외 사회의 빛이 되고 새로운영적각성 운동이 곳곳마다 일어섬 부흥되게 하소서. 혼란한 한국교회에 새로운 비전이 되게 하소서.

· 탈북자의 인권문제

이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탈북자를 위한 인권이 보장되며 국제적으로도 안정되게 보호받을 길이 열리게 하소서.

· 소양강문화제

새로운 이름인 소양강 문화제는 미신이 타파되고 향락문화가 틈타지 못하는 깨끗한 문화제가 되게 하시고, 빛되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게 하소서.

우리 소아과 (소아 전문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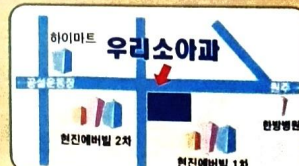
진료과목

□ 소아과 □ 피부과 □ 성장클리닉
□ 내과 □ 비만클리닉 □ 알러지클리닉
□ 이비인후과 □ 통증클리닉 □ 종합검진실

진료시간

연중무휴 전문의진료
□ 평 일 : 오전 8시~오후 10시 □ 공휴일 : 일요일 : 오전 9시~오후 10시
□ 토요일 : 오전 8시~오후 10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소아과 전문의 : 박태균
소아과 전문의 : 이병일
소아과 전문의 : 박진균
(중앙강리교회, 니눔성결교회)



주 소 : 춘천시 석사동 885-2 탑크리닉빌딩 2층·7층
T. 263-9502~4 주차시설 완비·아간진료·입원실

CBS 춘천방송
www.chcbs.co.kr 93.7 MHz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 상 호 조영춘
최영조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김규현 김수영
이희영 김미경

원고 투고 및 광고문의

2000-0900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복음이 춤을 추는 도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들

2004 성시화 선교대회는 하나님께 진정된 주인이었다. 이 기간에 춘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리고, 이를 이를 전락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이끄시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막을 내린 대회가 아닌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할 숙제를 과제물로 받은 듯 더 긴장이 된다. 이 숙제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독교연합회의 나아갈 길과 성시화운동이 지향 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여 주셨다고 본다.

첫째, 기독교연합회 문화집 행한 시민운동으로 전환하는 모형을 했다. 지금까지 시민들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만 움직이던 기독교인만의 운동이 대다수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통해 진실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면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광범위한 전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깨끗한 춘천만들기와 연합 바자회, 교단 대회 축구대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시민들의 마음조차 정결케 할 수 있는 클린운동은 기독교의 생리에 꼭 맞다. 골목들과 골짜기의 쓰레기 수거,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면서 이 땅의 더럽고 냄새나는 향락문화와 미신 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돌아보지 않는 곳에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이제에는 축구도 교단과 교회 대항을 넘어 모든 조기축구회들을 위한 축구대회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할 수 있고, 따라서 자연스러운 전도의 기회도 생기며, 또 교회가 춘천을 살릴 건전한 레저문화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축구뿐만 아닌 태권도, 배드민턴, 탁구대회 등으로 확산시키면 동호회별로 몰려 있는 레저인들을 복음으로 접촉하여 안아줄 수 있게 되리라고 본다.

또 연합 바자회 등이 활성화 되면 시민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홍보하며 모금을 하는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양심적 상권을 형성할 수 있고, 이에 복음성가대회를 겸하여 개최한다면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문화에 젖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고 본다.

둘째, 교회에서 전문 인력을 배양하고 사회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수 있다. 이번 성시화포럼을 통해 영적지도자들이 네트워크 함으로 실제적인 성시화 전략을 발전시켰다. 이를 더 발전시킨다면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포용할 수 있고, 또 가정, 청소년, 이단, 부부 문제 등 실제적 복음의 대안으로 이들의 필요를 채울 수

게 될 것이다. 또한 다양화되고 다각화된 사회의 깊은 곳에 들어가 문화의 썩고 부패된 것을 도려내며 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치료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또한 영적지도자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했던 전문 지식과 꼭 봉사하고 싶었던 영역에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함으로 신앙생활의 확신을 깨뜨릴 수 있고, 고리타분하다고 느껴지던 기독교 안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같은 생각과 비전을 가진 동역자들과 함께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면서 전문화 되어야 한다.

셋째, 한 교회 운동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다. 이번 성시화 선교대회는 한 교회 운동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대회의 첫날부터 24시 기도운동의 불을 지피며 도시를 축복하며 악한 영들을 연합으로 대적하는 영적 전쟁의 장을 열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합되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마치 깨어진 듯 한 모습을 보여왔고, 통일성을 잃어서 사회로부터 오히려 비난과 지탄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장점이 아닌가? 다양한 신학과 의견들을 통한 다각적 해답과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에게 입맛을 맞출 수 있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 다만 그 다양성 속에서 건전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를 하나되게 하지 못했던 영적 장애물들을 기도로 청소하면서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이 뼈, 저 뼈들이 자리를 잡으며 온전한 몸을 이루었듯이 생명력 있는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며 도시와 교회의 생명적 연합을 위해 기도로 헌신하겠다는 분들이 일어난 것은 참으로 고무할만한 일이고 특별한 은혜였다.

우리는 이제 이 기도를 통해 영적 정상회담을 하듯 이 도시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숙제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숙제를 도시 안에 풀어가며 해답을 순종으로 써내려 가는 동안, 우리 도시는 복음의 도시로 변화될 것이다. 경제가 바뀌고 정치의 기온도가 변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들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생명문화를 수놓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도시를 통해 한국의 모든 도시가 복음의 도전을 받게 되고, 춘천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관광을 오며 이 도시에 오는 모든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고 치료받고 회복되어 헌신하게 되는, 복음이 춤을 추는 도시가 되는 꿈같은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날을 기대하며...

(글/조영춘 목사)



깨끗한 춘천만들기



바자회

성시화 축구대회



원장 박 해 일 목사

춘천기독교 수양관

전인치유의 요람 기도응답 / 영성개발

에배시진 : ● 토요일 오후 2시 원장 전인치유세미나
장 소 : 춘천기독교수양관(05 02-302-1004)
(춘천읍 위 지암리, 집다리골휴양림입구)
<http://www.happyvalley.or.kr>

★ 차량운행
춘천역 버스종점에서 수양관 수시운행
춘천시내버스 38번, 민성병원 앞 오후 1시, 저녁 6시 30분 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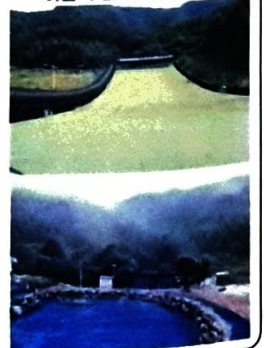
(200-864)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455
TEL : 0502-302-1004 FAX : (033)243-0831
<http://www.happyvalley.or.kr>



박 해 일 목사 지서



해피밸리 세계적 눈썰매장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주님과 함께 동역을 한다.

나는 백두산에 대 여섯 번 올랐다. 그때마다 나는 천지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10번 오르면 두 세번 본다고 한다. 상해에 사는 조선족 자매는 자기 동생을 구원시키기 위해, 또 우리 팀과 합류하기 위해 남경으로 왔고 함께 연결까지 동행했다. 동생은 우리의 복음을 냉대했다. 그러나 백두산까지 인도하는 친절함을 보였다. 그런데 이 날 1992년에 백두산에서 차량사고가 있는 지 만10년 만에 다시 사고가 있었는데, 천지에 오르기 전 소천지를 둘러보고 있던 그 순간에 천지를 오르던 차량이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이를 목격한 그는 죽음의 공포로 엉엉 울며 우리를 부둥켜안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했다. 그는 연변 음악단 악단장이다.

한 청년을 기차에서 만났다. 중국은 한 55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31개의 성을 가진 연합국가라 할까. 이번 여행으로 중국전역을 돌며 자기 민족이 가야할 길을 모색하는 민족주의적 민족청년이었다. 그는 기차에 오르는 낯선 한국인인 우리에게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우리를 찾아 왔다. 나는 컨디션 조절하기 위해 삼층 침대에서 쉬고 있었고, 우리 팀은 이 청년을 열심히 전도했다. 그러나 그는 종교는 물질의 풍성함으로 인해 정신이 공허한 자들이나 믿는 것이라 했다. 하나님께서 시편 자기 민족의 역을함들 들어 주셨어야 했고, 불의한 탐관오리들이 관을 치는데 그들을 심판하시야 한다는 것이다. 삼층 침대에서 듣고 있던 나는 그에게 모세이야기와 김진홍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다. 너는 너의 민족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느냐고 화를 내며 전도했다. 통역하던 조선족 자매는 내가 화를 내며 전도하는 것에 놀라 그대로 통역해두 되냐고 물었다. 그대로 하라고 했다. 그는 결국 굴복했다. 그는 이에 감사하여 식사를 사주고 우리 일행과 끝까지 사귀었다. 나중에 통역하던 자매는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통해 구원받는다 것에 매우 놀라워하며 간증했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황산이다. 남방에 있다. 나는 이곳에 많이 올랐다. 처음 이 산에 올랐을 때 우리를 인도한 가이드가 여행사 직원인 확광이었다. 그를 전도하기 위해 우린 보름 사이에 또 황산을 밟았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 후 우리에게 침례까지 받았다. 그는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 우리에게 돼지고기(천장에 말려둔 것) 큰손님이 왔을 때 쓰는 것, 등소평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들었다.와 열 냇가에서 잡은 고기들, 마당에 놓던 닭으로 우리를 대접했다. 우린 그의 부모님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의 부모는 선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필요없다고 했다. 죄가 없으니, 그는 옆집사람이 아플 때 멀리까지 가서 약초를 캐와 이뚱을 돌봤고, 이웃집이 자기 땅을 침범해 집을 지어도 양보했다고 한다. 복음을 전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절망감이 점점 밀려왔다. 로마서 1장의 "여러 죄 중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했을 때 그는 무너졌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위한 주님으로 모시었다. 사도행전의 백부장이 생각났다.

처소교회에서 네살 박이가 복음의 말씀들을 외우며 찬양을 우리 앞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 나의 막내와 같았는데 나의 아이는 글도 찬송가도 몰랐다. 처소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며 머리를 숙었다. 우린 이곳에 숨을 죽이며 밤에 몰래 들어갔다. 그러나 그곳은 영광의 도가니였다. 그들은 두려움도 없었고 밝고 명랑했다. 나의 이 표현이 적절하다. 이곳은 삼자

교회다. 주일 낮엔 시내 교회에서 모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이곳에서 드린다. 이곳을 이용하는 단기선교팀들이 부쩍부쩍하다. 열정적인 선교의 전초기지이다. 이런 곳도 있었다.

중국 대륙의 공산화 이후 반세기 동안 중국은 기독교의 황무지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그것은 서방 기독교의 착각이었다. 불과 반세기만에 서방 기독교의 영향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중국 대륙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즉의 장막 속에서 자생적인 지하교회들이 가정교회 형태로 하나둘씩 생겨났고, 조용히 세도가 번식하듯이 증식하더니, 중국 대륙 전역으로 퍼져 나가서 1980년대에 이미 그 수가 오천여만명에 달하였다. 기독교 역사상, 교회의 모든 부흥사건을 통틀어 보아도, 불과 30여년 만에 오천만명 이상의 지하교회로 성장한 사건은 실로 전무후무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로부터 20여년 지난 오늘날, 비록 비공식적인 통계이긴 하지만, 그 수가 무려 일억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950년 중국 정부가 삼자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추산한 기독교인구수가 70만명 정도) 서구식 신학교 제도나 목사제도, 선교사 훈련, 선교현금, 선교 프로그램이나 조직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평신도들에 의해 가정 모임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번성하여 형성된 매우 독특한 형태로서, 가히 교회의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중국 교회의 기적은 서방교회의 선교효과를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오늘날의 중국 지하교회는 서방교회들이 세운 신학교들과 학교, 병원들, 그들이 양성한 선교사들과 목사들, 그들이 투자한 엄청난 선교현금, 그들이 조직한 온갖 교회조직과 선교회 조직들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차라리 이 모든 인위적인 선교노력이 깨끗이 청소되었기에 가능한 것이 중국 지하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로 중국교회의 경이야말로 인간의 선교노력이 철저히 배제된 채 복음의 씨가 자연스럽게 발아하고 성장하고 번성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입증해 준 값진 교훈이 아닐까? 인위적 선교노력을 배제한 채 불과 오십년만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중국교회의 모델이 오늘날 미국교회의 모델보다 훨씬 순수하고 생동력이 있으며, 성경의 교회에 가까운 모델이라면, 내면적인 중국교회 교훈을 새삼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외형적으로는 한국교회가 21세기의 새로운 기독교 강국과 선교사 파송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스스로 선교강국이란 착각과 오만에 빠진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선교를 한다고 내면적 중국교회들을 무시하면서, 그동안 순수하게 성장해온 중국교회를 오히려 급속도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에 4차에 걸친 선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즉의 장막 속에서 그토록 강인하고 순수하게 성장해온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최근 한국교회와 서방교회의 영향으로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고, 순수성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돈과 조직, 물량공세를 앞세운 한국교회와 서방교회의 유혹과 압력에 이끌려 점차 변질된 서방교회의 모델로 타바꿈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중국에 선교를 하겠다고 야단법석이지만, 중국교회의 진면목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한국교회와 중국교회를 배워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중국선교를 하겠다는 착각과 오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서 하신 일을 예의 주시하며, 우리 조국교회의 개혁과 새로운 교훈을 받아야 할 때이다.

[아바의 집(ABBA HOUSE MISSION)]



순천 의암리 기도원

부설 섬터 양로원

정국성 목사



의암기도원전경



예배당



양로원 (1월준공)



휴식공간

예배안내

- 주간 집회
매주: 월~토요일 까지
시간: 새벽 6시, 낮 11시, 저녁 8시
- 목요 찬양집회 - 저녁 8시
- 금요 철야집회 - 금요일 밤 10시부터

실터양로원 안내

- 노인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치매중증 등 몸이 불편하신분
- 사정상 가족이 모시기 힘든분
- 혼자 살고있는분
- 말기암환자 요양 및 기도생활

주소: 순천시 신동면 의암리 231-2 (의암달밭전소 의암유원지내)
전화: (033) 262-7923 ~ 4, 262-5694, 019-224-8796

새 주인을 찾습니다



순천 기독교서점

(내년 인도 선교사 파송 예정)

시청 맞은 편

대표: 유인순

☎ 033) 257-5725
019-319-6837

노인대학 가을 나들이

춘천중앙노인대학

단풍이 물들어 가는 가을을 맞아 지난 10월 14일, 춘천중앙노인대학학장 유동선 목사에서는 춘천지역의 노인 약 1,700여명을 모시고 성우리조트로 가을 소풍을 다녀왔다. 오전 8시 30분 춘천종합운동장 앞에 모여 대형 관광버스 40대에 탑승하여 경찰차의 선도에 따라 성우리조트에 도착하였다. 도착 후 주요 행사장인 리조트 체육관에서 유동선 학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건강체조 등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특별히 점심식사 후에는 곤돌라를 타고 성우리조트 전망대 구경을 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고령은 92세의 할머니였다. 어렵게 참여한 최모만 할머니는 "내 평생에 이렇게 좋은 것은 처음 타 본다."고 하면서 "만약 이걸 타 보지 못했다면 편하게 눈을 감지 못했을 것"이라고 까지 말씀하였다.

우리 사회가 급작스럽게 젊은이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정적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노인들은 소외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소외되고, 평소 자유롭게 나들이를 할 수 없었던 노인들에게 기쁨을 만끽하는 가을 소풍이 되었다.

성우리조트 측에서는 대형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 가운데 가장 질서 있는 행사였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매주 춘천중앙노인대학에서의 교육과 자원봉사자의 철저한 섬김의 정신 때문이었다. 교육을 통하여 노인들이 움직여야 할 각 코스마다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였고, 식당에서 식판을 받아주며 노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배식을 도우며 안내를 하였다. 또한 곤돌라 승강장까지 곳곳에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어 친절인 인사로 맞이해 드렸고 곤돌라를 타고 내릴 때에 자원봉사자가 부족하여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모든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

본 대학 총장 유동선 목사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증양성결교회가 이루어 나갈 네 가지 비전을 선포하였다.

1. 선교명령을 준행하는 교회
2. 세교육을 책임지는 교회
3. 병든 영육을 치유하는 교회
4.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

4대 비전 중에 네째 비전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노년을 즐겁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보람되게 라는 목표 아래 춘천중앙노인대학을 2004년 5월 6

일에 개강했다. 2003년 5월에 담임목사로 부임한 유동선 목사는, 부임 직후 다리가 아픈 노인들을 모시기 위해 25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최신 교육기자재를 비치하는 등 교회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했으며, 성도들 70여명에게 노인복지사(2급)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여



지역노인들을 섬기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별관에는 미용실 의료실 등이 설치돼 지역 미용사와

의료진이 자원봉사하고 있다. 자원봉사에 동참한 의료기관은 춘천시 보건소, 김진수 내과, 전용현 내과, 최치은 치과, 김성권 치과, 김준호 외과, 춘천시 한의사협회 등이다. 춘천미용사협회를 비롯, 미용실 6곳에서 이

미용 봉사를 해주고 있다. 이러한 중앙노인대학에서는 매주 목요일 1,000여명의 노인들이 참석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음악학과, 건강체조학과, 한글학과 초급, 한글학과 중급, 영어학과, 일어학과, 중국어학과, 민요학과, 서예학과 등 9개 학과를 개설하여 노인들에게 실재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무료 급식, 무료 진료(한방, 양방), 무료 미용을 실시하여 매주 노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춘천중앙노인대학이 매주 1,000여명 모이는 것은 결코 기적이나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도 노인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춘천성결교회가 4~5년전부터 지역의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노인들을 섬겨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임목사님의 비전을 따라, 온 교회 성도들이 모임 때마다 노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혀 종교성을 띠지 않고 예배당을 오르내려 가요와 춤 등을 부르고 추지만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당 문화에 젖어가면서 현재는 노인들이 자원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던 어떤 할머니는 몇 주 전에 교회에 등록해서 매일 새벽예배까지 거르지 않고 나오고 계신다. 노인대학을 통해서 교회에 등록한 노인들은 대개 주일 오후예배도, 수요일예배도 잘 나오고 있다.

내년에는 주일노인대학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특목요일에는 종교성이 없는 모임으로 진행하고, 주일노인대학은, 목요일 출석하는 노인들 가운데 교회에 관심이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열린 예배를 계획하고 있다.

본 교회 성도들은 노인대학의 운영에 대해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동참하고 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물질로, 마음으로, 몸으로 헌신하고 있는 노인대학은 단순히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좋은 매개체가 되고 있으며 또한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료제공/춘천중앙성결교회 글정리/ 편집부)

건강한 집

녹색삶의 길잡이. 세균과의 전쟁(출장 즉석항균세탁)

- ▶ 곰팡이 세균에 오염된 침대
- ▶ 침대매트 특수항균 세탁
- ▶ 아동용의 오염내의와 얼룩진 침대
- ▶ 1년이상 사용한 침대
- ▶ 강대상, 바닥 카페트, 의자, 소파 항균세탁
- ▶ 자동차 시트, 천정, 바닥세탁

침대세탁119, 피아노 조율·수리

대표 이 무식 강도 (010-7525-0089)
대표전화 : 033) 261-2305 H·P: 016-848-7343(담당가사)

사진의 명가

귀빈스튜디오

[주공 1단지 시장 옆]

▶ 백악·독·웨딩사진촬영

▶ 교회임직 기념사진 촬영

대표 신 병 철
(순복음춘천교회집사)

전 화, (033) 253-8608 / 휴대폰, 011-377-2599

기도로 민족을 살리는 교회

의미있는 교회 탐방으로 서부감리교회(곽영준 목사)편입니다.

편 집린이 서부교회를 찾았을 때 마침 교회 앞에서는 SBS드라마 촬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마침 서부교회 앞 도로의 이름이 '영화 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온다. 해방 이후의 서민사의 풍경이 잘 간직되어 있는 교회 주변 환경 탓에 주위는 여러 방송사 및 영화사들의 단골 촬영지가 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겨울연가'가 방영된 이후에는 일본, 중국 등지에서 온 아시아 방문객이 하루 200~3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유서 깊은 교회

서부교회는 올해로 50년을 맞이하는 유서 깊은 교회. 이 교회에서 20여년을 함께 사역하신 노정관 목사의 후임 목회자로 2년여 전에 곽영준 목사가 부임했다. 곽목사는 이른바 모태신앙으로서 어린시절 천안 도화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국립철도고등학교와 호서대, 해군대학, 감신대학원 등에서 수학, 신학석사,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마친 성숙한 목회자이다.

곽목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지금부터 25년 전. 곽목사는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어머니의 서원기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철도고등학교에 진학한다. 그리고 졸업 후 1년여의 역무원으로서의 경험도 가졌지만 1979년 갑자기 찾아온 병명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원주기독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치유의 경험과 함께 그날 밤 하나님께 목회에 대한 사명을 확신 받게 되었다고 회상한다.

곽목사는 서부교회에 부임하기 전 서울 평화교회(서대문구 소재)를 담임자로 7년 7개월 7일을 섬겼다. 여건이 좋은 교회는 아니었지만 들어켜 보면 최선을 다한 목회였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서부교회의 비전 키워드는 '선교'와 '민족'이다. 선교운동과 함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서부교회의 제 1의 사명으로 선언하고 있다. 지난 3.1절에는 봉의산에 올라 교우들이 기도회와 함께 만세3창을 하기도 하였다. 새벽마다, 철야기도시마다, 집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한다. 곽목사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한 복음선교회]를 섬기는 김옥순 목사의 영향이 적지 않다. 여성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김목사의 뜨거운 마음은 곽목사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전임지에서는 매주 오전예배와 오후예배사 이를 '민족예배'라는 1차례의 또 다른 예배를 드리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한 예배 프로그램까지 두었을 정도이다.

곽목사는 재정과 행정에 투명하고, 목사관에 변변한 가재도구가 없을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타계하신 한경직 목사가 생각난다. 교회의 원로이자 젊은 시절 목회의 경험이 있는 장준홍 장로(63세)는 곽목사에 대해 '열정적이면서도 소탈하시고, 서민적인 정서가 묻어있는 분입니다. 아울러 평신도 지도

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교우들과 동역자의식을 공유하시는 귀한 분이시지요.'라고 평가한다. 늘 분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임한 초기부터 교회에 짐이 없어지고, 한때 지역 재개발제로 80여명 선거까지 내려갔던 출석 성도의 수가 다시 200여명이 넘는 수로 부흥, 회복되었다고 한다.



◀ 10월말 완공 예정인 선교관

곽영준 목사

1961년 5월 2일생
1985년 호서대 인문대학 신학과 졸업
1990년 경남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1993년 감리교신학대 신학대학원 졸업
1999년 연세대 사회교육원 문예창작과 수료
2001년 감리교신학대 선교학 박사과정 수료
1991~94년 은평지방 진관교회 전도사 사역
1994~2002년 시대문화방 평화교회 담임 목사
1999년 월간(문예사조) 시로 등단(시인)
현 2002년~ 서부교회 담임
서부교회 춘천시 소양로2가 93-34
☎254-2183/011-276-6105

서부교회는 기도가 강조되는 교회이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봄에는 3이레 동안의 다니엘 새벽기도회, 가을에는 153기도회가 열린다. 153기도회란 주일 오후 3시에 서부터 전교우가 1시간씩 릴레이 기도로 시작하여 그 주간 토요일 12시에 끝나는 153시간 동안 진행되는 기도회이다. 곽목사는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며 영적 전쟁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시간이 나면 일명 '땀방기 기도'를 통해 나라와 지역을 돌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임진강에서,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에서 기도모임을 진행하였으며, 일본 나고야의 신사 앞에서도, 러시아 크레믈린 앞에서도, 영국의 버킹검 궁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기를 기도했다고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선교교회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부교회의 열린 태도도 인상적이다. 교회전용공간이었던 주차장도 곽목사의 부임 이후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바뀌었다. 지어지고 있는 선교관도 지역과 함께 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 10월말 완공예정인 선교관은 주차시설과 커피숍을 겸한 휴식공간, 어린이 도서관, 예배공간, 목사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교회내에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이 갖추어지는 것은 춘천에서는 드문 일이다. 곽 목사는 말한다. "어린이 도서관은 현재의 필요도 있지만 2~3년 앞을 내다보는 의미있는 시도입니다. 곧 있게 될 재개발을 대비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도지요." 초대 예루살렘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받은 교회였다는 점에서 서부교회의 시도는 눈여겨 볼만하다.

곽목사는 현재 춘천 해비타트 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이사), 방송 설교와 신학교 강의사역을 하고 있다. 곽목사는 일찍이 [문예사조]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1999년에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춘천에 전혀 연고가 없던 이 도시에서의 의미 있게 활동하고 있는 곽목사의 가족은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폐막식 날에 결혼예식을 올린 김연심 사모 외 정근(중3)과 현아(중1) 두명의 자녀가 있다. 서부교회의 앞날에 더욱 찬란한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대해 본다.

(취재 최상도 목사, 사진 김미경 간사)

춘천시 지정 모범업소

유림닭갈비

대표: 최 순복 권자

은의동 닭갈비촌 골목 원조집
순수국산닭만 사용하는 맛음과
기쁨을 주는 믿음의 업체입니다.

본관 253-5489
별관 251-5489



천국열식 · 기획



홍경훈집사

열식 목사
도장
판촉물
기념품 제작

양우APT 사거리

☎ 242-2897 / H·P 011-360-2897

춘천의 영적지도자 100인에게 듣는다.

본 좌담회는 성시신문 7주년을 맞아 그동안 춘천 성시신문에 헌신

조영춘 : 그동안 성시신문을 개척하면서 마음과 시간과 재능을 기울여서 헌신하셨던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시신문이 어떻게 7년 동안 오게 되었는지, 또 과거의 것들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성시신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정재호 : 먼저 조총환 목사님께서 성시신문의 창간배경과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총환 : 성시신문은 1998년 9월에 창간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성시화운동본부 기획위원회에서 신문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운영위원회 20여명이 매달 어린이회관 식당에 모여서 신문 발행에 대한 토의와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매달 준비모임을 가지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토론을 거쳐서 발행이 되었고, 처음 성시신문이 발행되었을 때는 전국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전국 직장선교회를 통해 전국으로 신문을 발송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고, 태국 신학대 총장으로 계시는 윤수길 총장, 뉴욕에 있는 춘천시 교역자협의회 총무를 하시던 허 결 목사, 월드비전 이영구 목사 등이 필진으로 참여하면서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성시화운동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재호 : 1998년 9월에 처음으로 발행이 되었고, 그 전에 성시화운동본부 기획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신문발행에 대한 제안을 했던 것이군요.

조총환 : 당시 제가 사무총장으로 섬기게 되면서 성시신문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에서 수락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신문 발행에 대한 절차를 밟아간 것입니다. 처음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었지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1~2년이 지나면서 기독교신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매달 기쁨으로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호 : 김기태 장로님과 김영명 집사님께서 처음에 신문 발간을 도우면서 있었던 일화들을 말씀해 주세요.



김기태 : 저는 72년도부터 춘천성시화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성시화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평신도 성경구약부 구성원들과 함께 기도모임을 갖게 되었고, 시간 내기 어려워도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회의 고급인력들이 자기 직장에 바빠서 신앙운동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4년, 95년부터 IMF를 거치면서 신앙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도에 조총환 목사님께서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을 맡으셔서 제

칼럼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서 칼럼을 쓰기 시작했구요. 성시신문의 제호부터 시작을 해서 신문 발행에 대해 많은 쓴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나 칼럼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교회 소식이 많이 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주일 오후면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주보를 모아 각 교회의 소식을 많이 담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사들과 의견들이 실릴 수 있도록 집필진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도 조총환 목사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김영명 : 제가 성시화운동에 눈을 뜨게 된 것이 1990년 춘천 직장선교연합회에 참여하면서 부터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조총환 목사님께서 제2대 연합회장을 하실 때 제가 직장선교연합회 춘천성시화추진위원장을 맡게 되었죠. 1995년도에 기관장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당시 전용태 검사장이 춘천으로 오시면서 성시화와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관장들이 모여 기도모임을 갖게 되면서 1996년 9월에 성시화운동본부를 결성하게 되었죠. 당시 성시화운동본부가 결성되게 된 시발점이 기관장들의 금요일기도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모임들이 직장선교연합회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이어졌으며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태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시화운동본부를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역시 춘천의 모든 기독교 단체들, 특히 교회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춘천에서 시무하시는 목사님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연합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기획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춘천성시화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 매체, 특히 신문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고, 조총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문을 발간하였는데, 처음에는 값이 잡히지 않았고, 98년 제8대 직장선교연합회를 하면서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 신문이 발간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애가들이 많았지만, 원고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고 부타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사당하셔서 어려움이 참 많았구요, 또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출하기도 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관심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 할 수 있죠. 조총환 목사님께서 고군분투하면서 이끌어 오신 것이 바로 이 성시신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총환 : 당시 춘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기독교 문인들, 화가들, 그리고 기자 출신의 수필가 등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춘천성시화운동을 알리는데 성시신문이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재호 : 어려운 점도 많았을 테지만, 그래도 성시신문 발

간에 참여하면서 보람되고, 감사했던 일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조총환 : 저는 절대적으로 춘천성시화운동을 알리기 위해서는 신문이 발간되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별로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성시신문의 발간과 함께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오히려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죠.

김기태 : 처음으로 성시신문이 발간되었을 때, 저는 많은 성도들이 이 신문을 접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신문이 나오면 제 차에 항상 50부 이상을 싣고 다니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었고, 자비를 들여서 강원도 내에 있는 감리교 교단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매달 발송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시간에 교회 문턱에 서서 일

일이 성도들 모두에게 배포해 주었죠. 최근에는 보면 성시신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시신문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각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직접 집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정철 : 저는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독교찬양예술제를 준비하면서 98년도 모임에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림대 교수님들이 참여를 많이 하셨는데, 그 때 처음으로 참여하여 찬양제를 준비해서 1998년 3월 19일, 5월 1일 찬양제를 열었고,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춘천성시화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문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춘천출리클럽이 창립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춘천 분들도 많이 참여했지만, 서울 등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에덴실과

생일, 결혼, 금진, 효도 **대교 김 정 관** 안수집사

문병, 개업식 각종 기념일

영사에 필요한 과일

문안카드 와 함께

배달해 드립니다.

전화 주문

(033)242-5252

256-5252

후평동 현대 2차APT 앞

Design Top Pia **중앙공고디자인**

디자이너

명함, 스티커, 전단지, 포스터, 카탈로그, 초대장, 청첩장, 계상서, 각종블루, 및 서투본, 서식, 미스타, 명패를 등, 관측할, 라이다, 계약 및 행사 기념품

행사물, 단체복, 유니폼, 단체T, 현수막, 실사현수막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07-2

TEL : (033)263-5152

FAX : (033)242-5121

춘천성시신문 창간 7주년 특별 좌담회

에 헌신하셨던 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며 나눈 대담입니다.



신중철 : 이 때 신문을 매개체로 춘천성시화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었고, 메달 발행되는 성시신문을 매개체로 대전, 대구, 부산 등 성시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각지의 관계자들이 계속 춘천을 방문하여 춘천성시화운동을 알게 되었죠. 이를 보면 성시신문이 굉장한 홍보 자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조충환 목사님께서는 불꽃같은 열정으로 성시신문을 발간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옆에서 보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성시화에 뜻을 담고, 애쓰시는 모습이 저희 평신도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신문 발간이 될 수 있었던 구심점은 목사님이 버티고 계셨기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도 필수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시화운동, 성시신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먼저 젊은 장로님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74년 처음으로 춘천에서 조교과 장로회가 설립될 당시만 해도 장로들이 48명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각 교회별로 많은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연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호 :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공감 많이 되는데, 제가 1994년부터 성시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했는데, 그 때 보니까, 그 당시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장로님들은 대부분 60대 장로님들이었고, 40대, 50대 분들은 공백 상태였습니다. 춘천성시화는 가만히 보면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40대, 50대가 커다란 공백처럼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명 :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의 춘천성시신문이 대내외적으로 춘천을 알리는 홍보물이었고, 선교지였기 때문에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담보해 낼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준 : 그동안 성시신문을 위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셨던 분들의 조언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경험과 조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함께 참여해 주시고, 지금처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네요.



정재호 : 지난 얘기는 이쯤에서 접도록 하구요, 현 임원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지금 나오는 신문을 보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태 : 항상 보게 되면 현 임원진들의 임기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단절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관되게 춘천의 성시화를 알릴 수 있도록 상주 인원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성시신문이 나름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이구요, 성시신문이 전국에 춘천의 성시화운동을 알리는 중요한 매체인데, 지면이 전체적으로 좀 딱딱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신문의 사진과 큰 글씨는 보기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고가 좀 큰 느낌이 들었고, 신문의 전체적인 균형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을 알리는 페이지나, 다양한 기사들을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명 : 기독교 사업체, 의사선교회, 예술인협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지역 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독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다양한 방안들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성시신문에서 제공되는 내용들을 애타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교회에서만 보여지고 마는 그런 신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수 있는 신문이 되기 위해서 배포도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충환 : 정말 성시신문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마음을 비우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마음으로 춘천 성시화를 위해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시화를 향한 열정이 신문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춘천성시신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철 : 궁극적인 성시화의 방향은 춘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곳곳에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성시신문을 통해서 소개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양한면에서도 따뜻한 내용들이 지면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성시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들도 좋지만, 구석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분들의 따뜻한 사연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다양한 기사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 집필진들을 확보해서 필진도 다양화 시키고, 지면도 내실화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준 : 지금까지 유익한 말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춘천성시신문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04년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성시화운동본부

좌 담 :

조충환 목사(현 춘천성시신문 편집인 및 사무총장)

김기태 장로(현 춘천성시신문 편집운영위원)

김영명 안수집사(경증 직장선교연합회 회장)

신중철 장로(성시화운동본부 운영위원)

조영준 목사(현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정재호 목사(현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차장)

이희영(춘천성시신문 편집기자)

김미경(성시화운동본부 간사)

진행 : 조영준

자료정리 및 사진 : 이희영, 김미경

김영명 : 초기

성시화운동, 성시신문 발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싶습니다. 성시화운동본부와 기독교연합회가 같이 조직이 되었는데, 기독교연합회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회원제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참 빈약했죠. 성시화를 위한 기도모임, 교회 탐방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이 되어 주신 분들이 순복음춘천교회였는데요, 매주 수요일을 성시화를 위한 특별헌금일로 정해서 매달 100만원 이상 재정적인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각 선교회 간의 연합이 부족하다는 점이고,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김기태 : 다들 아시겠지만, 연합 사업은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지도 중요하지만, 연합 사업에 참여하는 평신도, 목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성령의 불길로 춘천을 인도하소서”

[주] 유 성
(토목건축공사업)
대표이사 신 중 철
☎(033)263-6903-4

취급 품 목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인테리어
- 기계설비공사
- 도목건축공사
- 도목건축공사
- 도목건축공사

천이노기획 Since 1978
대표 전 천 일 안수집사

실사, 나염, 인쇄물, 판촉물
제작, 썬팅, 기타상담

교회현수막 전문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에 작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Tel. 255-5722 * 디자이너 : 박은진, 전남희
Fax. 256-5722 * 기술담당 : 박승기 **디자이너(구인)**

소개합니다

ANI 선교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행 2:17)라는 말씀에 따라 국내외에서 중보기도의 영을 받아 사역하는 의미있는 단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태동한 국제적인 선교단체가 ANI선교회이다.

ANI선교회(All Nations' intercessors)는 1997년 9월에 소수의 무리들이 자발적 중보기도모임을 시작한 이래 국내에서는 서울 중보기도모임, 대전 중보기도모임, 울산 중보기도모임, 포항 중보기도모임이 출범하였고, 국제적으로도 미국, 독일, 중국,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파라과이, 캄보디아 등에 지부를 개척하거나 중보기도세미나 과정을 개설해 놓고 있다. 춘천은 지난 7월에 중보기도세미나를 개설함으로써 ANI모임이 형성되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보기도운동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중보기도 운동이란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자(에스겔 22:30)가 되도록 하는 운동으로서, 중보기도자인 우리 자신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영혼구원을 위한 본래적 소명을 깨닫고 기수로 나서는 사람을 말한다. ANI선교회에서는 세계를 대륙별로 나누어 각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단의 견고한 진을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그 나라에 대한 제반 문제를 구조적인 영역들로 나누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도록 중보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조적인



영역이란 정치, 경제, 언론, 예술, 교육, 가정, 종교, 과학·기술, 건강·스포츠로서 9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 영역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고, 그 분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중보자로써 말씀의 원리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중보 대상을 볼 수 있도록 삶 전체를 훈련하는 것이다.

현재 춘천지역 ANI선교회의 실무책임자로 섬기고 있는 전성균 간사는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들이 모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중보기도사역자들을 통해 도시와 세상을 바꾸실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소감을 피력한다.

춘천지부에서는 지난 9월부터 12월초까지 베드로선교센터 추수홀에서 13주간의 중보기도학교가 운영 중이다. 내년 3월에도 중보기도학교가 개설될 예정인데, 다음 주제는 중보기도, 영적 전쟁, 나라와 권세, 성령의 기름부으심, 말씀으로 사는 삶 등이다. 특히 ANI선교회는 도시의 총체적 영적 변혁을 꿈꾼다는 점에서 춘천에서 시작되어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성시화운동과의 높은 연계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참여 문의: 전성균 간사 018-203-8917, talbert@hanmail.net)

영혼의 양식

진실의 승리

(에스더 7: 1-10)



석사감리교회 임택창 목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고, 평화와 갈등이 공존하고, 진실과 위선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위선과 거짓은 멸망하지만 진실과 선한 것은 최후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만은 에스더서의 중심인물 중에 한명입니다. 에스더가 왕후로 있는 동안 그는 궁정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명하여 하만에게 절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궐에서 문지기인 모르드개는 자신이 유대 인임을 고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하만은 분하여 모르드개 한 사람에게 아닌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의 거짓된 음모는 모르드개의 금식기도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사적인 믿음과 진실에 의해 발각이 됩니다. 결국 하만은 악함과 거짓으로 자신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모르드개의 목을 달고자 했던 장대에 자신이 달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실은 세상의 권력과 황금보다 강한 것입니다. 하만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악함과 거짓으로 스스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개와 에스더처럼 진실과 함께 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진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언제나 악함과 거짓을 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영혼을 다스리며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권력과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진실한 사랑뿐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사랑이 하늘에 닿아 하만의 음모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한 싸움은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함과 진실함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악함과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승리,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에 속한 백성들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선함과 진실함으로 이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고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방송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CBS춘천방송은 춘천지역교회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설립된 선교기관으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일반대중을 향한 선교방송이며, 특별히 CBS TV는 순수복음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1) CBS방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라디오: FM93.7, CBS TV: 스카이라이프 162번, 강원케이블 73번, 인터넷방송 www.cbs.co.kr)

2) CBS춘천방송 운영에 동참해 주십시오.

▶ARS 전화 한 통에 1천원 헌금됩니다. ☎ 060-700-0937

▶온라인 농협 : 203-17-000933 조흥 : 515-03-003825

신협 : 04073-12-002331 예금주 : 기독교방송

▶지로용지 (지로번호 : 8006815)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 255-2001-2

CBS춘천방송 본부장 김진규



강원문구

대표 : 김철렬
(중앙장로교회 안수집사)

종합운동장 건너편

☎ 033) 252-0563
011-9959-0563

하나님의 걸작품 '가정'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최후의 순간, 최고의 걸작품으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최초로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무섭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붕괴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사회가 흔들리고, 세상은 점점 더 혼돈과 공허, 흑암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이에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를 소개합니다.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케치프레이즈와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슬로건 아래

1. 아버지의 영향력 2. 아버지의 남성 3. 아버지의 사명 4. 아버지의 영성 5.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5주 동안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며 1)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2) 성적인 순결을 지킨다. 3) 매일 아내를 격려하며, 자녀를 축복한다. 4)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킨다. 5)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린다. 6)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긴다. 7) 일터에서 정직한 일꾼이 된다. 8)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에 기쁨으로 동참한다.는 사명 아래 이 시대의 어둠 속에 빛을 던지고, 좌절에 빠진 아버지들에게 꿈을 주며, 방황하는 아버지에게 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회를 향한 두란노 아버지학교 영적 운동의 목표이다.

춘천지역에서는 제1기 아버지 학교가 11월 6일(토)부터 12월 4일(토)까지 5주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10만원(교재, 식사, 단체복 제공)이며 접수 및 문의는 253-2741/011-590-0855를 하면 된다.

어머니 학교는 아직 춘천에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어머니 학교 본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어머니학교의 비전은 성경적인 여성상을 제시하여 이땅의 어머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돕는 베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자녀를 잘 양육하여 가정을 세우며 궁극적으로는 열국의 어머니로서 교회와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감당하는 것이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칠고 아름다운 것도 험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잠31:28-30)

(문의 02-3785-0696)

(글 편집부)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남성, 가정의 목자, 교회의 지도자, 사회의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할수있도록 격려하고 훈련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운동을 펼쳐나간다.



<김 춘배>



독자의 소리

아름다운 춘천의 성시화를 기리면서....

박용신 집사(애경침례교회)

춘천을 사랑하며 이 도시의 변화를 위해 주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답고 깨끗한 춘천은 예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병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무속인들이 난무하는 등 너무나 퇴폐화 되어가는 춘천을 이대로 그냥 보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연합기도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시화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변화되어지길 위해 같이 울부짖어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춘천을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주님은 그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이 춘천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힘차게 열심히 성시화운동에 마음을 합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우리 춘천의 성도들이 변화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활짝 꽃피게 되어질 성시화를 위해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보배를 가득 담아 채운다면, 이 땅에 흐르는 소양강의 푸른 강물이 생명의 강이 되어 서울과 한반도를 적시는 기적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때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혁신적인 초절전형 반도체조명

시온라이트(반도체조명)의 특기사항

- ◆ 규격이 다양하다. (직경 6-13mm, 길이 4m 계속 연결하여 무한정 가능)
- ◆ 전기사고로부터 안전하다.
- ◆ 안정기 없이 220V에 직접 연결한다.
- ◆ 회도가 아주 밝다.
- ◆ 무공해(LED)라이트로 환경보호네온사인 간판에서는 네온가스 및 수은이 발생하여 심각한 오존층 파괴
- ◆ 기존 네온대비 94% (13분의 1)의 초절전형제품이다.
- ◆ 간판, 종탑, 십자가, 인테리아, 수조조명, 모형, 분자 등 사용처가 다양하다.
- ◆ 특허를 획득한 제품이다.



수동기도원(남양주시 수동면)



생명수교회



임관제일교회·기도원 (경기도 광주시 오곡면)

제조원: (주) 시온라이트 | 시공사: 한국기독교공사 | 주 최: 기독교 에너지 절약 운동본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상세리제센터 A동 1316호 | TEL: 02-556-9169 | HP: 010-3170-3669

/ 포 / 토 / 예 / 세 / 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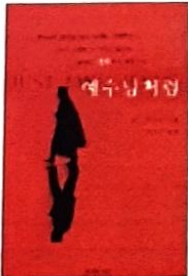


책으로보는 세상

예수님처럼

글 / 춘천평안교회 고재만 목사

맥스 루카도 지음, 윤종석 옮김, 북 있는 사람, 1999.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으며, 12장 2절에는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또 깊이 생각함을 통하여 온전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예수를 바라보며 달리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이 책의 의미는 예수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함을 깨우쳐준다.

맥스 루카도의 「예수님처럼」은 어떻게 예수

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지침서와 같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다룬다 보면 자칫 무거운 글이 될 수 있지만 저자의 탁월한 감각은 단숨에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큰 감동과 구체적인 적용까지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내용은 12장으로 되어 있다. 1장의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딱 하루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이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내 삶이 그대로일까? 아니면 변화될까? 당연히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 원하신다. 2장부터 예수님의 마음이며, 또 변화되어야 할 내 모습을 하나하나 보게 만든다. 짐작없이 매인 사람들 사랑하기(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의 손길(공출해 이기는 마음), 하나님의 음악 듣기(듣는 마음), 보이지 않

는 손에 이끌려(하나님께 취한 마음), 변화된 얼굴(예배에 주린 마음), 골프와 셀러리(초침이 분명한 마음), 오직 진실만을(정직한 마음), 마음의 온실(순결한 마음),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금회(망에 찬 마음), 하늘에 잔치가 열릴 때(기뻐하는 마음), 끝까지 강하게(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자"로 '맺는 말'을 하고 있다.

제목만 보고 이미 집한 적이 있는 상투적인 내용이라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읽어 보시기 바란다. 그런 분들을 위해 책 말미에 '묵상을 위한 제안'을 붙여 놓았다. 참고로 이 책은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출판사들로 구성된 ECPA에 의해 1999년도 최고의 책으로 선정 되었다.

구인·구직광고

"너의 짐막 터를 넓혀라. 짐막의 휘장을 아까지 말고 퍼라. 너의 짐막 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이사야 54:2)

성시신문에서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신뢰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합니다. 믿음의 반석위에 세워진 업체와 준비된 구인자의 만남의 통로를 세워 나가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꿈이있는 교회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하실분을 찾습니다.

문의 264-0691(영육구원)

011-386-6239

♣ 천악기획

디자이너 구함

자력 - 크리스찬

- 일러스트/포토샵 가능자

문의 033) 255-5722

♣ 성시와 운동본부

신문배 포를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033) 256-1260

010-3118-9355

공개구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께서 주신다." (잠언 19:14)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분들의 건전한 교제와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자리가 되는 공간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좋은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 : 256, 257-1260

행사안내

각 교회 및 단체에서 모든성도들이 함께 나눌 행사나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문의 : 256, 257-1260

010-3118-9355

카페 크리스찬 T:244-9117
시청 옆
cafe christian
http://cafechristian.cyworld.com



창조와 신용을 제일로 하는 조경전문기업 전문업체

강원농원조경공사

조경설계 및 시공전문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 ♣ 제배잔디판매
- ♣ 정원공사, 주택, 별장, 가든 조경공사
- ♣ 서드스프레이, 자연석 쌓기
- ♣ 각종 묘목, 생산판매 전문
- ♣ 제배 잔디 생산, 판매 전문
- ♣ 각종 관상수/조경수 전문



춘천시 근화동 266-2(강원예식장 뒤) 대표 임 회 방
☎ 254-8986 / FAX 255-8981(야간: 254-5930) / H·P 011-369-1278

애틀어

ntours

대표 김 지 현 집사 (춘천동부교회)

(011-9057-3946)

TEL: 244-7400

도청 밑에 위치

- 합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외 여행 알선 (수학·졸업 여행)
- 배낭여행·어학연수
- 전세 버스 압선
- 신혼여행
- 유로페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결실의 계절 가을의 기독교문화축제!

♡ 2004 춘천선교대회 이모저모



▲ 7일 저녁 7시 석사감리교회에서는 직장선교연합회 찬양대회가 열렸다.



▲ 8일 저녁 9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는 전라적연합 기도회에서 아버지학교팀이 특송을 부르고 있다.



▲ 9일 저녁 7시 춘천문화회관에서는 춘천연합찬양축제가 열렸다.



‘깨끗한 춘천, 거룩한 춘천’을 위한 2004 성시화 춘천선교대회가 지난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주최, 선교협의회, 직장인선교회, 기독교미술협회, 축구선교회, 월드비전 등 여러 단체 주관으로 한주간의 축제가 열렸다. 10월 첫째주를 성시화주간으로 선포하고 기독교문화운동을 춘천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열린 이번 선교대회는 선교부흥회, 리더십세미나, 성시화포럼, 기독교미술대전, 복음성가제, 친선축구대회, 바자회, 청소년 찬양제 등 다채로운 문화축제로 펼쳐졌다. 특히 3일~6일 괴영민(김남종임침례교회)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동부장로교회에서 열린 선교부흥회에는 약 2만 5천여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춘천의 전반의 영역(행정, 경제, 교육)이 새로워지고 율동과 퇴폐적인 문화가 깨끗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헌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춘천선교대회를 통해 모금된 헌금과 바자회 수익금은 인도 비하르에 가난한 농촌학교를 설립하는데와 독거노인, 북한어린이돕기에 쓰이게 된다.



▲ 9일 오전 10시부터 종합운동장에서는 바자회와 친선축구대회가 열렸다.



▲ 9일 오후 4시 춘천중앙성교회에서는 브라보 거룩한 십대 찬양제가 열렸다.



▲ 3일~6일 동부장로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의 미술작품을 전시하였다.

♡ 세계제자훈련원(WDTI)준공예식

지난 10월 2일 오후 3시에 세계제자훈련원(WDTI)준공예식이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서 있었다. JDM한국이사장인 김창환 목사(춘천온누리교회)의 설교,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오승룡 목사와 춘천CBS본부장 김진규 목사의 축사로 400여명의 지체들이 모인 가운데 준공을 축하하며 예식을 가졌다. 앞으로 세계제자훈련원(WDTI)은 전 세계의 사역자들과 평신도들을 위한 훈련 기관으로 사용될 것이며, 춘천 지역의 교회와 단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각종 수련회와 1박 2일 집회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수련회시 이용 가능 인원은 400명 정도이다(연건 1만 1천여㎡). WDTI는 제플실(400여명 수용)과 강의실 3개, 소예배실 1개, 숙소(50명 수용), 도서관(12,000여권) 4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도서관은 춘천 시내의 교역자들을 위해 개방하며, 도서관에는 열람실이 20개, 컴퓨터실 인터넷 이용가능, 20여개가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033) 243-6701, 242-2819로 하면 된다.

♡ 제18회 장로연합회 정기 총회

지난 10월 24일(주일) 오후 3시 30분 춘천침례교회에서 30여명의 장로들이 모인 가운데 개회예배와 함께 제 18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회장 한주식 장로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개회 기도(직전회장 황병호 장로), 총회회의록 낭독(서기 성낙훈 장로), 사업보고(총무 김현주 장로), 감사보고(감사 이영규 장로), 결산보고(회계 서종신 장로)가 있었고, 2005년도 신임 임원을 선출하였다. 신임 회장에는 임운식 장로(순복음춘천교회)가, 총무에는 김용현 장로(순복음춘천교회)가 선출되었다.



† 聖地토의 특별한 초대 †

- ♡ 성지 순례
- ♡ 여권 비자
- ♡ 단기 선교
- ♡ 항공 발권

성지순례 프로그램 센터 강원지부

우리여행클럽 ☎ 242-6400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외건축연구소

033-242-5573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달림 1리 81-5

광고

사설



“눈썹이 없는 여인”

박상호 목사
문지 편집장, 순천제일장로교회 담임

이들을 보나 나무랄 데가 없는 한 여자가 있었다. 한 가지 숨겨진 큰 콤플렉스가 있다면 그것은 눈썹이 정말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짙은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 다녔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러던 이 여자에게도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 정말로 사랑했다. 남자도 여자에게 다정하고 파스하게 대해 주었고, 마침내 둘은 결혼을 했다.

그러나 여자는 그놈의 눈썹 때문에 항상 불안했다.

일년이 지나고 이년이 지나도 여자는 자기만의 비밀을 지키면서 뒤편에 들키면 어쩌나,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싫어하게 되면 어쩌나, 따뜻하기만 한 남편의 눈길에 경멸의 눈초리로 바뀌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삼년이란 세월이 무사히 지나갔다. 그러다가 이들 부부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쳐왔다. 상송일로를 달리던 남편의 사업이 일순간 망하게 되었다. 둘은 길거리고 내몰리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연탄배달이었다. 남편은 앞에서 끌고 여자는 뒤에서 밀며 열심히 연탄을 배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오후였다. 언덕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리어키의 연탄재가 날아와 여자의 얼굴은 온통 검댕이 투성이가 되었다. 눈물이 나고 답답했지만 여자는 얼굴을 닦을 수 없었다.

혹시나 자기의 비밀이 들킨 비빌까봐, 그때 남편이 곁을 멈추고 아내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수건을 꺼내어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남편은 아내의 눈썹 부분만은 건드리지 않고 얼굴의 다른 부분을 모두 닦아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눈물까지 다 닦아준 후 다정하게 웃으며 남편은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했다.

갑추려 예를 쓰나 갑추어지지 못하는 허물들이 있다. 우리는 그 허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주변에 모르는 척 갑추어 주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다른 사람이 갑추기를 원하는 부분을 들추어 내며 그로 인해 만족감을 느끼려하는 이들도 많다. 교제도 그러하며 사회와 정치계도 그러하다. 그러나 땀을 닦아 주되 눈썹은 건드리지 아니하는 마음이 요구된다. 그래서 오히려 땀보다 더 진한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좋겠다.

알려드려요

예수사랑운동

1) 'Rise Up! 찬양집회'

일시: 11월 17일 저녁 6시 30분 매일 마지막주 토요일)
장소: 순천동부장로교회 소매점
문의: 244-5400 / 019-538-3235

2)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사랑의 훈련'

일시: 8월30일(월)~11월30일(화) 3개월간 장소: CCC회관

2) '부모님 초청 전도 집회'

일시: 11월 13일(토) 오후 6시~12시 장소: CCC회관

3) '초·중·고 정도 훈련 및 성서 대학'

일시: 11월 15일(월)~18일(목) 저녁 7시~11시 장소: CCC회관
문의: 254-5776 / 011-216-3621

예수전도단

1) 독수리 예수 재단 훈련학교(R.E.D.T.S.)

일시: 2004년 12월 22일 ~ 2005년 8월
원서마감: 12월 12일까지 대상: 대학생
문의: 019-419-8268(유영환 간사)

2) 모수침묵 위한 70일 기도

일시: 2004년 10월 15일 ~ 11월 13일 리마단 기간
교회마다 담당자를 두고 정해진 시간을 이용하여
기도운동에 연합하여 동참하기 바랍니다.
문의: 기도모임과 기도안내책자(연당 2천원)

3) 재가 가정의 자녀들

일시: 2004년 10월 16일(토)~2005년 1월 15일(토)
주제별 강의와 치유 캠프, youth 캠프, 전도여행으로 진행됨
대상: 만 7세 ~ 18세
문의: 252-2619/010-6698-5859(유경희 간사)

JDM

1) 강원대 JDM 20주년 감사추진

일시: 11월 5일(일) 저녁 7시 장소: 강원대학교 구 선관관 100호

2) 다나에서 사경회

주제: 깊고 은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20-22)
일시: 11월 16일(화)~18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 세계제자훈련원(WDTU)

3) 가족의 밤

일시: 11월 19일(금) 저녁 7시 장소: 미정

3) 이화대 성교사 파송예식

일시: 11월 25일(목) 저녁 7시
장소: 세계제자훈련원(WDTU)
문의: 252-3192/011-9058-3192

IVF

1) 강원(순천)지방사역 전략회의

일시: 2004년 11월 2일(화)~3일(수)
장소: 아사이선교회

2) 캠퍼스 정기 모임 안내

강원대: 매주 화 오후 6:30분 (문의: 한재남 간사 011-367-9120)
한림대: 매주 화 오후 6:30분 (문의: 이용훈 간사 016-444-7406)
교육대: 매주 화 오후 6:30분 (문의: 사공은혜 간사 011-9244-5209)
영남대: 매주 화 오후 6:30분 (문의: 서혜원 간사 011-367-(0692))

어린이 전도회의

1) 2004년 하반기 새소식반(Good news club) 교사 감사회

일시: 9월 7일(화)~11월 30일(화)
강습회 시간: 낮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시
밤반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30분
장소: 배드로정원외교 5층 추수홀

2) 2004년 하반기 학급약 지도

교회학교 선생님과 함께 지도한 후 교회로 인도하는 프로그램
일시: 2004년 9월 9일(목)~11월 25일(목)
전도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교사전도훈련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전도도구-없음은책)

3) 2004년 하반기 성막장강습회

일시: 11월 15, 16, 18일
장소: 신성감리교회 저녁 6시 30분~10시
문의: 033-253-1443

배드로선교센터

1) MPS(성경세계화) '플 커미데이'

일시: 11월 27일(토) 오후 2~6시 대상: MP1기부터 7기까지
장소: 한림대 일출아트홀 문의: 253-3399/019-9903-1148

2) 땅위에 사는 사람 안 그루 땅의 인생

최초의 남북합작으로 뽐낸 과거에 가속치를 켜줍니다.

3) 사랑 화 3부

일시: 11월 11일(목)
전국 100만 기독교인들이 봉입을 위하여 특별금식 실시

2) 메회의 베품 착상

일시: 11월 1일~13일까지 2주간
전국 300여 캠퍼스 및 교회에서 모금운동 전개
후원회차: 예금주 이상봉(북한대학생들기운동)
문의: 순천지역담당 011-9058-3192

순천 제1기 아버지 학교

일시: 11월 6일~12월 4일 (매주 토요일 오후 5시~10시 30분)
참가비: 10만원 (교재, 식사, 단체복 제공)
장소: 순복음순천교회 문의: 253-2741 / 011-590-0855

<성시신문 후원자를 찾습니다>

후원회차: 2003-02-28 0238 조남진
조금 714501-001369 조남진
국민 301-01-0505-522 조남진
후회차 200002-02-129749 조남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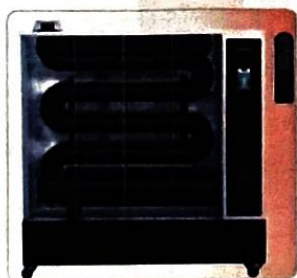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신문을 위한구독금에 동정합니다)

[성시와 후원자 명단]

남천천감리교회	늘사랑교회
순복음순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임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새순교회
사우동장로교회	염린교회
예광침례교회	중앙장로교회
순천석사교회	순천성결교회
평화감리교회	순천동부교회
천일현수막	앤투어
김준연	김길홍
김현철	김영명
민병업	박동환
성기운	신성균
신종철	안미애
안정숙	엄필남
오훈수	이용규
이판호	이학규
유근창	장기영
정찬복	조은제
최경웅	최상호
최치광	한희현
황병찬	허순영
홍성운	홍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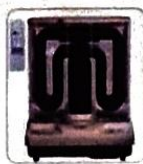
연료비 최대 70% 절감!!

연료 1회 보충으로 최대 8일간 사용



AH800F 60형형

에어렉스
원적외선히터



AH250 10~25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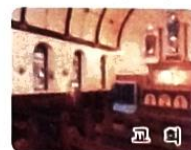
※ 5~70평형 까지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전문회사 제품이라 품질이 느껴 집니다

- 연료소모는 최소, 열량은 최고입니다.
- 냄새·소음을 확 잡았습니다.
- 국내 유일 국가공인기관 인증 "원"마크 획득
- 50dB이하의 초저소음
- 원격외선 열방사로 건강난방 실현
- 강력송풍 체크로 원거리 입체난방 가능(F모델)



사무실



교실



식당

웹시바 주식회사

속초점 033)636-1335
순천점 033)263-2224 HP 011-524-7390